==========

16/01/10(주) 주일예배 / 제목 :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창 21:1~5) p.26

==========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신앙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 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제가 그 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시기는 하신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겪는 신앙적인 갈등은 우리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 여러 차례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시13:1~3)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윗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도 다윗과 같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욥 23:6~9)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합 1:1~13) "살려 달라고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시키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들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당한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실제 현실의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로 매달려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현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본론 /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대부분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을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앙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였지만 믿음의 용사들의 실제 삶은 외롭고 괴로웠던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나요? 무려 25년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이루어주겠다)..."(창12:2)고 약속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창13:16)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큰소리는 뻥뻥 치시면서 정작 아들 하나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을 별을 세어봐라. 그렇게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게"(창15:5). 라고 말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

씀했지만 하늘의 별은 커녕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라는 아들은 주시지 않으면서 약속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철떡같이 하신 것입니다.

'준다'고 그랬으면 바로 그 다음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5년이나 기다리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는 25년간이나 침묵하시다가 막판에 아들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약속의 실현 뒤에는 무려 25년 간이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야곱의 11번 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17살 때에 꿈으로 큰 자리에 오를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요셉에게 나와서 절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릴적부터 신동 기질을 발휘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차츰 차츰 출세하도록 만드셔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생활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억울한 생활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에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억울한 노예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은 무정할 정도로 침묵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요셉도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반면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기름부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승승장구하여 골리앗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 되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옥쇄를 넘겨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노릇은 잠시이고 그후로 10여 년간 온갖 고생 다하며 정처없이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떠돌이 10년간은 왕을 꿈꾸기는커녕 다윗은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왕이 될거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었지만 무려 10여년간의 침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무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침묵도 철저하게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힘들어서 고통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수 없이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남편들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만 어쩐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병도 낫지 않고 그대로이고, 자녀들도 남편들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사업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약속에 빠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빨리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대부분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2.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특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술 시종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그가 복권하게 되었고, 그는 요셉에게 곧 감옥에서 풀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술 시종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2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정말로 요셉이 야속하다고 느낄 만큼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하여 요셉을 더 단련시키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요셉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요셉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침묵하실 때 요셉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을 좀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10여년 동안 배반당하고 쫓기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도 키웠으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도 커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13년간의 하나님 침묵으로 인한 고난 수업 덕분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웅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도 10여 년간의 하나님 침묵으로 인한 고난 수업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셨다면 요셉과 다윗은 그 시대에 큰 그릇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응석이나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함이고,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약 1:2~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중병에 걸리면 그 믿음 좋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증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내 하나님을 떠나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

버리고, 점도 치고, 굿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를 굳게 믿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만물에는 때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예를 들었듯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롬 8:25~27) 넷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롬 8:28)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이 이 자리에 지금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의문이 들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조금도 실망치 마시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약정리 /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대부분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2.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